

- 미래모빌리티 기술고도화 및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가칭 - 기술 수요 조사 관련 협조 요청

□ 기술수요조사 개요

- (목적) AI기반 모빌리티 시대 도래에 따른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모빌리티(자율주행, SDV 등)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이템 발굴
- (조사기간) '24. 8. 22.(목) ~ 9. 6.(금)
- (조사항목) 기술수요 내용, 시장 및 기술 특성, 참여 의향, 인프라 구축 수요 등
- (조사대상) 자동차산업 관련 수요·공급 기업 및 연구소, 대학 등
- (참여방법) 산업기술 R&D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전산 접수
※ 산업기술 R&D 디지털 플랫폼(<https://rome.keit.re.kr/romeplus/>)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, [R&D 기획참여 → 의견제안 → 수요조사의 '미래모빌리티 기술고도화 및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(가칭) 기술수요조사 공고'에서 의견접수

□ 충남 사업 필요성

< 사업개요 >

- ◆ (사업위치) 충남 아산시 일원 ✓
- ◆ (총사업비) ^{잠정} 1조 3천억원(국비 1조원, 지방비 3천억원) ※ 지방비는 부지비
- ◆ (사업내용) 실생활 기반 테스트 존(Zone), 데이터 센터, 종합 평가·검증 실험실 구축

-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하여 급성장* 중이며, 우리 정부에서도 2027년 완전자율주행(레벨4**) 상용화 계획 발표('22.9.)

* 기존 완성차 업계(현대차, 도요타, GM 등) 및 글로벌 IT 기업(구글, IBM) 등 투자 확대 중

** 제어 주체가 차량에 있고, 대부분의 도로에서 운전자 개입 불필요한 자율주행

-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부품 종합평가·검증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필요

※ 스페인^(아다이다), 헝가리^(질라존), 미국, 일본 등에서도 이미 자율주행시험장을 구축(8개소) 운영중

⇒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사업 기획시 현대모비스·관련기업 대상 수요 조사결과 82%(64개사)가 활용 및 입주의향 표명

□ 입지여건

- (인프라 우수) 천안아산KTX역(2km 이격) 인근 사업부지(54만평, 축구장 250개 규모) 마련, 자동차 부품산업 집적
 - ▶ 현대자동차(아산), 동희오토(서산) 등 완성차업체 입주, 자동차 부품기업(632개) 전국 4위, 근로자(42,090명) 전국 3위
 - ▶ 사업부지 10km 이내에 경부고속도로 천안IC, 목천IC, 논산천안고속도로, 남천안IC, 풍세IC, 당진천안고속도로 존재, 청주공항으로부터 43km(약51분)에 위치
- (연관산업 집적) 금속(분말소재, 경량금속), 디스플레이, 반도체, 수소, 석유화학 등 연관산업 집적으로 미래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최적지
- (우수인력 확보 가능) 21개 대학(85개 모빌리티 관련학과)에서 연간 5,070명의 관련 전문인력 배출
- (혁신기관 다수 입지) 충남테크노파크(미래자동차센터, 첨단모빌리티센터), 한국자동차연구원(본원), 한국생산기술연구원(본원), 한국산업기술시험원(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)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기후환경실증센터, 첨단금속소재센터),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(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)이 입지
- (전력 풍부)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, 전국 전력 발전량의 약 20%를 담당하고 있어 전력공급 우수
- (자연재해 안전) 지난 10년간(2011~2020) 지진에 의한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음
- (초광역 상생협력) 충청남도·경기도의 베이벨리 조성을 통해 미래차 메가 클러스터 구축

□ 주요시설물

주요시설물 구성 벨로드롬, 시험로, 기상환경 재현 터널 등

